

이정우(전 청와대 정책실장) 1차 구술

1. 구술자: 이정우
2. 면담자: 김형욱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11월 29일
5. 구술장소: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대회의실
6. 구술분량: 07분 47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과 원칙

구술자 : 대통령이 끊임없이,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끊임없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 탄핵에서 위헌결정이 나가지고 돌아와서 대통령 업무를 복귀하는 그 기자회견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게 국민들은 잘 이해를, 잘 못 했겠지만은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고 역대 대통령하고는 다른 원칙주의자로서 노무현, 편법을 써서 우선 당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경기 살리고 또 부동산 투기 일어나서 집값 더 올리고 서민들 더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장난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걸 경제부처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대통령이. 그래서 ‘당장 성장을 낮아도 당신들 문책하지 않겠다. 당신들 책임 아닌 거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편법 써서 경기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세금 자꾸 깎아주고 인기 영합주의로 가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점이 아주 대통령이 훌륭한 점이죠. 경제부처하고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랐구요.

저는 대통령이 그, 아까 동반성장이라는 용어는 대통령 작명이고 그게 철학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철학이라는 게 뭐냐하면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철학에 대한 거부죠. 그 철학이 뭐냐 하면 두 개의 철학인데요. 하나가 시장만능주의. 그때가 이미 레이건(Reagan), 대처(Thatcher)부터 시작해서 한 이십(20)년 이상 시장만능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기에 대통령이 된 것이죠. 또 하나가 성장지상주의라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한국을 지배해온 사상

이에요. 성장지상주의라는 것이. 박정희 이후로 성장지상주의죠. 역대 정부가 한 번도 성장지상주의를 벗어나 불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정부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없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달랐습니다. 시장만능주의를, 원가 이거는 옳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적극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시장을 교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아까 얘기대로 예산을 늘리고 좀 조매(조금) 큰 정부로 갔죠. 올바른 방향입니다. 왜? 한국정부는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하고 정부 안에서도 예산도 경제예산 줄이고 사회정책 예산 늘이는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했고. 그런 점에서 시장만능주의를 수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도전하고 시장을 교정하려고 노력한 오(5)년이었죠. 그런 증거는 찾아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또 하나가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거입니다. 성장지상주의로, 역대 박정희 이후 모든 대통령이 성장지상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성장률이라는 이 통계가 거의 무소불위의 그런 힘을 가지는 거예요. 성장률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장관을 문책하고 교체하고. 모든 관심이, 대통령 관심이 성장률에 가있었습니다. 박정희 때는 심해가지고 성장률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데요, 한국은행에서 대통령 눈치 보고 그, 통계를 마사지¹⁾하고 그랬습니다. 그 뒤 대통령들도 성장률에 너무 집착을 했었죠. 성장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최초의 대통령이 노무현입니다. 훌륭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경제장관들 보면은 ‘성장률 낮아도 좋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욕은 제가 다 먹고 가겠습니다. 원칙대로 합시다.’ 그렇게 간 거죠. 그렇게 간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역사에. 그렇게 진작, 그런 훌륭한 대통령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가 노무현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대통령이 나타난 거죠.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장률 낮아도 좋습니다. 원칙대로 합시다.’ 그 후에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고, 부동산 투기를 잡았고, 부정부패도 막고, 이렇게 기초를 마련하다 보면은 성장률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죠.

멀리보고, 장기주의(長期主義).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에 이름 붙여야 될 거 중에 하나가 장기주의입니다. 장기주의, 최초의 장기주의자였습니다. 역대 대통령 전부 단기주의(短期主義)고 올해 뭐 실적이 어떠냐,

1) 원래 내용과 다르게 수정해 발표하는 것을 말함.

이번 달 실적이 어떠냐, 거기에 집착하는데 비해서 대통령은 그거 무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장기(長期), 멀리 보고 갔거든요. 그 점이 훌륭한 점입니다. 그래서 성장지상주의라는 저 주술에서 풀려난 최초의 대통령이고 그래서 성장과 복지의 조화,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겠다, 그래서 분배주의자로 몰리고 분배주의 정권이다 그러고 복지에 치중하다가 성장에 발목 잡는다 그러고 온갖 욕을 먹었는데 과연 누가 옳습니까? 그렇게 욕한 ‘조중동’²⁾이 옳습니까? 그렇게 간 대통령이 옳습니까? 대통령이 옳다는 걸 지금 세상이 한번 확 바뀌고 뒤집어 지니까 이제는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이천팔(2008)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요³⁾. 전환점 이후에 이제 세상이, 사람들이 바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분배와 복지의 가치를 이제 국민들도 보게 됐고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복지국가를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출발은 노무현이죠. 노무현이 성장지상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욕먹더라도 내가 기초를 닦겠다,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 구술자 주요이력

1950. 대구 출생

1968.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2. 서울대 경제학 학사

1974. 서울대 경제학 석사

1983. 미국 하버드대대학원 경제학 박사

1993. 경북대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1993. - 2003.02 경북대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교수

2001.05 - 2003.0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2분과위원(경제노동)

2002.12 - 2003.02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간사

2003.02 - 2003.12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장관급)

2003.04 사회통합기획단 단장

2004.01 - 2005.0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말함.

3)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를 말함.

2003.12 - 2005.08 노무현 대통령 정책특보

2005.01 한국경제발전학회 명예회장

2005.07 - 경북대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2012년 현재)

대선후보 시절 정책자문단에 참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거쳐 참여정부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을 맡았다.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도 ‘진보의 미래’, ‘국가의 역할’ 등을 놓고 집필을 모색하던 노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다.